



몽당연필동인 문학
Concert

詩가 된 부산, 노래가 된 BUSAN

6월 인천, 7월 대구, 9월 서울, 10월 부산, 11월 울산, 12월 광주
2014 서노래패올림의 느리게 떠나는 노래여행

일시: 2014년 10월 15일(수) 늦은 7시 30분

장소: 부산예술회관 (대연동 TBN 부산교통방송국 옆)

주최: 문화예술창작집단올림, 몽당연필동인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누구도 나에게 이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구도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삶의 언덕을 올라보면 저만치 또 다른 언덕이
신기루처럼 무지개처럼 찾아 헤매던 날
낮은 율조림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혼잣말처럼 부르는 노래

누군가 나처럼 뒤척이며
밤새워 잠 못 드는 밤
내 낮은 휘파람 소리에 눈물이 나고
그렇게 때로는 풀잎이
부는 바람에 속삭이고
어디선가 들리는
귀뿔이소리 잠 못 드는 밤
낮은 율조림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혼잣말처럼 부르는 노래

다시 또 길 떠나는 나그네에게
잘 가란 손짓 대신 불러주는
또 만나잔 약속 대신에
불려주던 그 노래
그래도 그 노래 소리에
세월은 가고 구름도 가고
그렇게 머물던 인연마다
귀에 익은 멜로디
누군가 따라 부르던
나만 부르는 노래
내가 들려주던 나의 그 노래
낮은 율조림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혼잣말처럼 부르는 노래

- 권지연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의 전국 투어콘서트 여정

2012년

- 07.06 서울 홍대롤링홀 "그래도 그대가 그리운 것은"
- 08.24 부산 예술회관 "낮아져서 한없이 낮아져서"
- 09.25 대구 문화예술회관 "가을, 우체국 근처 거기쯤.."
- 12.22 울산 시청 대강당 "길, 그 경계에서.."

2013년

- 06.14 서울 홍대롤링홀 "달팽이처럼"
- 06.22 하동 최참관댁 야외공연장 "지리산 이야기, 섬진강의 노래"
- 07.12 부산 예술회관 "몽당연필의 꿈"
- 09.13 대구 문화예술회관 "새벽 하야로비"
- 12.14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호계장 사람들"

2014년

- 06.13 인천 아트플랫폼 "동창회 가는 길"
- 07.18 대구 문화예술회관 "가던 길 잠시 멈춰서서"
- 09.19 서울 홍대롤링홀 "가을 편지"
- 10.15 부산 예술회관 "시가 된 부산, 노래가 된 부산"
- 11.07 울산 문화예술회관 "울림, Again 2002"
- 12.15 광주 첨단디자인센터 "광주 가는 길"

'시가 된 부산, 노래가 된 부산' 프로그램

Part.1 시가 된 부산

1. 기장역에서 / 시 김경숙, 노래 박제광
2. 연지동 산14번지 / 시 변중환, 노래 박제광
3. 바닷가 모랭이마을 / 시 김소해, 노래 김차경
4. 자운영 핀 들길에서 / 시 이옥진, 노래 이숙경
5. 바람 앞 등불 꽃 / 시 이석래, 노래 이숙경, 김차경, 박제광
6. 오시게 장날 / 시 우아지, 노래 이숙경, 김차경, 박제광

Guest 노래하는아이들 뚜버기 / 창작곡 '우리의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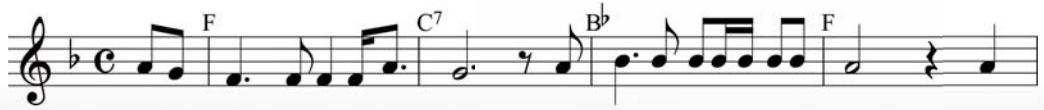
Part.2 노래가 된 부산

1. 7월, 다대포 / 시 이석래, 노래 박제광
2. 풀잎의 잠 / 시 변중환, 노래 이숙경
3. 더운밥 / 시 손중호, 노래 박제광
4. 목련은 피는데 / 시 김수민, 노래 김차경
5. 눈사람 / 시 김경숙, 노래 이숙경
6. 위층에는 세탁소아저씨가 산다 / 시 김소해, 노래 이숙경, 김차경, 박제광
7. 자갈치 시장 / 시 김검수, 노래 이숙경, 김차경, 박제광
8. 우리는 자갈치에 가야한다 / 시 손중호, 노래 이숙경, 김차경, 박제광

기장역에서

J = 90

시 김경숙, 곡 박제광



열차는 추억 어디쯤 눈물로 건너고 있을까 하



루를~ 편애한별~ 이 쓸리는~ 기장역에서 못다



한말수평선 건너 노을로 뒤적이는 데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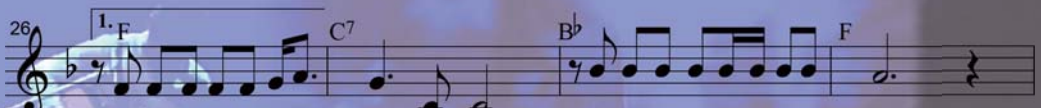
는 갈수 없 는 길에 닿 으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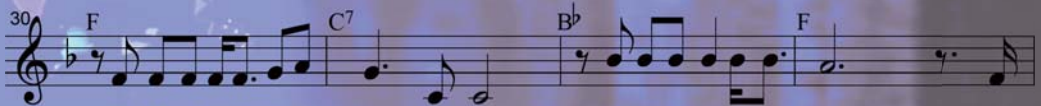
섬으로가는배를 탈 것인가 기적소리따라 되돌아갈텐가
가~ 먼걸음그만 멈추거나 신세타령은없을 것이네



그냥주저앉아 이대로 저물 것인가
외딴건널목에서 눈물털고일어나



이별이먼저떠난 중착역 바람이 추억을건질 때



조붓이허리굽혀 주다가 안개에 갇히고 도 그

34 *F C7 F C7 F*

저 속 울음 삼킬 뿐 그 저 속 울음 삼킬 뿐 *D.C. al Coda*

38 *2.F C7 Bb F*

산 소 리 들 일 어 나 깨 우 는 길 을 향 해 아 무 령 지 아 무 게

42 *F C7 Bb F*

차 별 없 는 이 별 을 고 할 것 인 가 몇 마 장 아 득 한 길 을 되

46 *C7 F C7 F*

돌 아 ~ 갈 것 인 가 그 대 언 제 쯤 이 면

눈 사람

몇 날이나 빙판길을 헤매다 왔는가 / 머리가 희끗한 흰 살의 남자 / 흙투성이 외투를 필력이며 / 무릎이 눈에 묻혀 있네 / 직장을 잃었는가 / 한쪽 어깨가 젖어있네 / 싸락눈이 눈동자를 찢러도 / 말없이 웃고만 섰네 / 끼니는 때웠을까 / 허공에다 빈손만 흔드네 / 더는 갈 곳이 없는가 / 우두커니 창 밖에 홀로 저무네 / 날마다 눈물이 되는 남자 / 길 한 귀퉁이가 허물어지네

- 詩作 Note

깨끗한 눈을 골라 굴려도 눈덩이는 흙이 묻었다. 눈이 내리면 길목마다 찾아오는 눈사람. 아무리 멋진 눈사람도 흙투성이다. 웃는 눈, 기울어진 어깨, 젖은 그림자까지 흙으로 얼룩져 뺨속까지 상처투성이다. 평평 눈 오는 날 평평 울고 있는 눈사람을 보았다. 눈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얼룩이다. 한평생 눈길을 서성이다 결국, 눈물이 되는 사람을 보았다

지현 김경숙 시인

서울 출생, 『월간 문학』 시부문 등단, 『수필 시대』 수필부문 등단
 부산시인협회 회원, 부산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미래시] 동인, [경일문학회] 회원, [시사랑문화모임회] 회장
 [일경시낭송회] 회장, [복원야생화연구소] 소장
 한국바다문학상 수상
 시집 『소리들이 건너다』 『이별 없는 길을 묻다』 『우리 시대의 나그네』
 『먼 바다 가까운 산울림』 외 공저 다수



연지동 산14번지

♩ = 90

시 변종환, 곡 박제광

A.G / Bass

연 지

동산 1 4 번지 두 부 장 수 소 란 스 레 새벽 하늘 휘 물 아 가 던 그

유 년 의 땅 은 적 막 한 폐 허 다

세 상 의 모 든 길 따 라 거 친 함 성 이 물 려 다 니 던 시 절

어 둠 속 에 집 을 짓 ~ 고 곤 한 잠 에 내 일 을 밝 히 던 연 지

동 산 1 4 번 지 <전체만주>

먼 바 다 외 판 섬 처 럼 잊 을 수 도 되 돌 아 갈 수 도 없 이

생 존 의 싸 움 끝 나 버 린 지 금 죽 음 보 다 깊 은 잠 이 휘 물 아 친 다

38 Gm Cm F D7
 뜨거운심장대 신 싸늘한말무성한 채

42 Gm Cm D7 Gm
 허공을가르는 휘장하나 가던걸음멈추게한 다

풀잎의 잠

밤마다 풀잎을 흔들어
 풀잎의 잠을 깨우는 것은 바람이지만
 풀잎을 흔들어 다시 잠을 깨우는 것은
 그래, 때로는 달빛이거나
 달빛 속으로 혼자 나는 새의 몸짓일 수도 있다.

밤마다 풀잎을 흔들어
 풀잎을 흔들어 다시 잠을 깨우는 것은
 그래, 때로는 당신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거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다

- 詩作 Note

우리 삶의 두 가지 요소는 '사랑'과 '고통'이다. 사랑이 없는 삶과 고통이 없는 삶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무의미하고 밋밋하겠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활기가 넘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긴장하며 살아간다. 풀잎은 민초의 삶과 비유된다. 달빛 아래 고요히 하늘거리는 풀잎을 보라. 풀잎을 흔들어 풀잎의 잠을 깨우는 바람의 행적.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고통을 연상하게 한다.



변종환 시인

現 부산광역시문인협회 회장,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회의 회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 부산시인협회 제10대 회장·역임 시집 『水平線 너머』(1967 親學社), 『풀잎의 잠』(2010 두손컴) 등 4권. 산문집 『餘滴』(1998 삼아), 『K兄에게』(2011 두손컴)

E-mail : bjh9009@hanmail.net

오 시계 장날

♩ = 110

시 우아지, 곡 박제광

변두리 장터에서 토정비결 보는 박 씨
 5 내 년 농사 ~ 작 황 부 터 집 나 간 강 아 지 까 지
 9 침 침 한 돌 보 기 너 머 궁 금 증 도 갈 어 있 ~ 다
 13 잡 혀 온 염 소 새 끼 불 받 으 며 장 난 긴 새
 17 병 중 인 아 내 안 ~ 부 슬 그 머 니 물 어 보 ~ 니
 21 괜 찰 소 덕 담 한 마 디 방 굿 웃 는 사 내 의 미 소
 25 지 는 해 도 파 장 거 리 로 얼 추 산 을 념 ~ 는 ~ 데
 29 흥 정 도 한 등 만 ~ 등 팔 려 가 는 아 기 염 ~ 소
 33 매 에 엠 장 ~ 날 저 녁 이 노 을 속 에 발 ~ 감 ~ 다



우아지 시인

경남 함양 출생. 인제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석사).
 1993년 <현대시조> 신인상 당선.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조시인협회, 나래시조시인협회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조집 『히포크라테스 선서』, 『꿈꾸는 유목민』, 『염낭거미』

E-mail : spark117@hanmail.net

자갈치 시장

J = 110

시 김검수, 곡 박제광

한 평 남 지한 좌 판 대 여기가 울엄니의 삶터이지에 손님이면 - 오는대 로

안 오면 안 오는대 로 얼마나 문데샐는 지 나무의 자반질반질 하지 에

울엄니 그렇게 한 평 생 살아 오시면 - 서 육남매 모두 잘키 워

높은 학교 다 보냈다 아인 교 서 방은 못 배웠어 도 그랬어도 말 - 엄니 더

우리 엄 - 니 정말 장 하지 에 그럼 비수 한번 쳐 주이 소

고 맵 습니 데 이 하 모 - 요 다음 에 또 오이 소

- 詩作 Note

몇 년 전 일이다. 자갈치 시장 봉사 단체인 일심회와 재부 강원도 청.장년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낭송회를 갖기 위해 그 곳을 찾을 때마다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내 고향은 김해 진영읍에 있는 농촌 마을이지만, 아줌마의 억척같은 삶을 볼 때마다 평생 허리 한 번 펴지 못하시고 살아 온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많았다. 하루 종일 밭일 하시다 주먹으로 허리를 치시다 잠시 잠들었다가, 아침밥을 챙겨 주시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시던 그 가난한 어머니가 바로 자갈치 아줌마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삶을 이곳으로 옮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자갈치 아줌마는 내 어머니요 내 누나이기도 하다.

김검수 시인

경남 진영에서 태어나

2003년 『한맥문학』에 수필과 2004년 계간 『대한문학』에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국제 펜 한국본부 이사, 부산문인협회와
부산불교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는
『간토기 앞에서』, 『가야의 빛』,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가 있다.

E-mail : dchmotor@hanmail.net





이석래 시인 / 울산 서생면 나사리 출생

문예춘추 2006 시 신인상, 부산시조 2008 신인상, 부산문협 2011 작가상 수상, 동리목월 창작대학 수료 동 대학 동문회장, 한국문협/부산 문협/부산시조시협/부산불교문협회원, 부산시협이사, 사하문협회원 현 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

시집 『을숙도를 스쳐 흐르는 강물』 『사계의 노래-물, 빛소리, 마음』 『다시듣는 사계의 노래』

바람 앞 등불 꽃 -개망초

바쁜 걸음 눈여겨, 보는 이 아무도 없는
한길 가 보도 틈 도토리 낮은 목으로
황금빛
소복이 담아 흰 구름 햇살 되었네

잡초의 세상에도 치열한 자리다툼
던진 듯 버림치로
밟힐까 두려움 속
또순이 끈기로 이룬 질긴 의지 강해라

산허리 달동네 가난도 대물림인가
밭땀기 이어짓는 들꽃 같은 이웃들
눈 앞 삶 고달픈 날은
고개 숙여 사는 계야

좋은 날 오리란 기대 누구나 인지상정
힘들어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작은 틈
어렵게 피운 개망초 네 같구나

7월, 다대포

내고장 다대포
칠월은 바다가 열리고
천년의 푸른 숲 물운대엔
그윽한 솔향의 머뭇도 있다.

나무가 들려 주는 푸른 솔가지 소리
안기슴까지 식혀 주는 강바람 소리
속살을 드러내는 흰 파도
여덟 음계보다 고운 물결 소리가 있다.

포구가 풍기는 갯냄새
물가엔 갈매기의 펼쳐 드는 날개짓
물떼새의 재잘거림
달랑계의 군무가 있다

달밤의 은물결은
사랑하는 친구와 은파 넘어
노 저어 가고픈
손짓이 있다
희망의 나라
이어도로 가고픈 유혹이 있다.



김소혜 시인

경남 남해 출생, 진주여고 졸업
1983년 <현대시조> 1988년 부산일보신춘문예 등단
시집 『치자꽃 연가』 『흔들려서 따뜻한』 『투승점을 찌다』 등
성파시조문학상, 나래시조문학상

바닷가 모랭이 마을

지금도 바람 한 점 그대 마음 흔드는가
흔들려서 따뜻한 사랑인 줄 알겠네
바닷가 모랭이 마을
그 길에 어룽지는

경치 좋아 사부자기 걸어보는 바래길도
저만치 돌아보며 놀이 삼아 걷지는 말게
아득한 노동길이네
보릿고개 살리던

좁작한 지겟길은 황톳길 자갈이네
이웃은 이웃끼리 두레하며 넓어진 길
다락은 가난만큼 높아도
가난하지 않았네

위층에는 세탁소 아저씨가 산다

실밥 뜯듯 다투는 소리 늦도록 끝이 없다
저렇게 틈이 벌면 얼굴 어찌 대할까
어설픈 걱정하느라 남은 잠이 달아난다

비비새 조잘거림 아침이 상쾌하다
해장국 끓이느라 또닥또닥 도마질 소리
아저씨 다림질 솜씨 주름들을 지웠나

출근길 엘리베이터 그 안에서 만난 부부
쓰레기봉투 들고 서서 인사가 참 밝다
짜깁기 좋은 솜씨에 터진 슬기 흔적 없다

- 詩作 Note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한다. 그만큼 대수롭잖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부싸움만큼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다. 가정파탄이란 이혼의 발단도 부부싸움이 아니던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재미있게 처리한 작품이 이 작품이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되었다.



김수민(연주) 시인

전남 해남 출생, 아호 一明.

월간한국시등단, 심리상담사.

한국문인협회회원, 부산문인협회회원, 부산시인협회회원, 부산여성문인협회이사

시를짓고사랑하는모임낭송대상, 한국시신인상수상

시집 『조금씩 낮추다』

목련은 피는데

너를 보내고도

살 수 있다는 것도 꿈만 같은데

벌써 사월의 신부처럼 면사포쓰고

내 안에서

그리움으로 서성거린다

마디마디에 맺힌 순수

환한 미소로 달래주고

그 끝자락에 서면

금방 날아가 하늘하늘 거린다

들릴 듯

다가서는 마음 뿐

빈자리엔

그리운 몸부림만 남아

시리도록 아픈 세월

다리만 놓았다

- 詩作 Note

사법고시 2차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던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너무나 잘생겨서 불허진 별명 꽃레, 우리의 꿈동이였다. '누나, 나 죽을 것 같애' '너 죽으라고 누가 가만 놔 둔다더냐?'

나는 이렇게 거짓말쟁이 누나가되어 동생을 보내고 꿈인듯 기다리는 세월만 흘러갔다. 형제들 중, 누구보다도 대화 상대였던 동생이 문득 미치도록 그리울때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책만 읽다가 세상구경도 못해보고 맑고 고운 순수 그 자체로 떠난 꽃레, 목련나무가지 끝 하얀꽃잎이 벼랑끝에 서서 누나 하고 부르는 내 동생의 모습같이 느껴지던날 다가서면 떨어질 것만 같아 바라보다가 적은 글이다. 꿈과 현실을 오가며 10여년이 흐른 지금, 나는 그 옛날 동생과 주고 받던 편지가 쌓인 서랍장을 열지 못한다. 무섭게 다가서는 그리움 때문이다. 나 언제쯤 그 서랍장을 열어 그 옛날 사연들을 읽어볼 수 있을까.....

자운영 핀 들 길에서

♩ = 110

시 이옥진, 곡 박제광

Cmaj7 Fmaj7 G7 Cmaj7

햇 별 따 순 봄 날 이 면 원 동 으 로 갈 까 보 다

6 Fmaj7 Cmaj7 Dm7 Fmaj7 Cmaj7

무 리 저 알 롱 ~ 달 ~ 롱 자 운 영 핀 들 길 에 서

10 Dm7 Cmaj7 Am7 Dm7 G7 Cmaj7 C7

첫 사 랑 그 여 름 그 림 자 중 일 토 록 찾 아 볼 까

14 Fmaj7 Cmaj7 Fmaj7 Cmaj7

밭 아 래 붉 ~ 은 구 ~ 름 아 득 한 꽃 밭 에

18 Fmaj7 Cmaj7 Dm7 G7 G#7

스 르 롱 잠 이 들 면 아 롱 아 롱 그 해 봄 별

23 Cmaj7 Fmaj7 Cmaj7 Dm7 G7 Cmaj7 D.C.

잠 힐 듯 잠 히 지 않 ~ 는 아 지 랑 이 푸 른 날

- 詩作 Note

자운영은 '붉은 구름의 그림자' 라는 뜻이다.
 무리져 피어 있는 자운영 꽃밭은 잠들고 싶을 만큼 아늑하다.
 아지랑이 푸르른 첫사랑의 그림자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곳.
 올해도 자운영 피는 5월, 원동으로 가고 싶다.

이옥진 시인

경남 통영 출생. 북제주 애월 하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냄
 청주교대, 부산교육대학교 졸업, 부산 수영초등학교 교사

2004 <부산시조>신인상

오늘의 시조, 나래시조 회원 / <시눈> 동인

시조집 『먼나무 숲으로』 2012

E-mail : soup3927@hanmail.net





작곡, 노래 박제광



포엠싱어 이숙경



포엠싱어 김차경

초대시인



변종환 시인



손증호 시인



김소혜 시인



이석래 시인



김경숙 시인



이옥진 시인



우아지 시인



김검수 시인



김수민 시인



Drum 김민동



Bass 김승언



Synth 최주영



E.Guitar 신은섭



Guest 노래하는아이들 뚜버기

